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수학의 힘

	일시	10/17 16:00 상상베이스 107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2293006 이승현	○			
	2271461 하현석	○			
	2271465 이지행	○			
	2331237 하은빈	○			
진도	도서명: 수학의 힘	진도페이지: 28p. ~ 42p.			
1주차					
토론 내용	<p>[하현석, 이지행, 민경진 교수님, 하은빈, 이승현]</p> <p>첫 활동에서는 간단한 자기소개, 앞으로의 활동 진행 방향, 선정 도서 [수학의 힘]에 대한 간단한 교수님의 소개가 있었다. 서로의 전공과 이름, 관심사에 대해 알고, 왜 수학의 힘 클럽에 지원하였는지, 수학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p> <p>민경진 교수님은 AI가 선도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우리도 인공지능의 기반인 수학에 대해서 알 필요를 강조하시며 책의 1장 1부 [적절한 그림 한 장이 백 마디 말보다 낫다]에 대해 내용 설명을 해주셨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그래프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을 백 마디 말 없이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그래프 눈속임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우리 조원들은 그래프 눈속임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보고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기로 하였다.</p> <p>이승현님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하현석님은 수입 수출 물가지수 증감률 그래프, 이지행님은 대선 후보 지지율 그래프, 하은빈님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최저임금 그래프 이렇게 각 그래프들을 가져와, 위 그래프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바르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 그래프를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p> <p>논의를 거친 후, 다음 활동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으며 다음 활동은 11/7에 가지기로 약속하였다. 이상.</p>				

2주차	일시	11/7 16:00 상상베이스 102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2293006 이승현	○
		2271461 하현석	○
		2271465 이지행	○
		2331237 하은빈	○
	진도	도서명: 수학의 힘	진도페이지: 43p. ~ 107p.
			
	<p>[하현석, 이지행, 이승현, 민경진 교수님, 하은빈]</p>		
	토론 내용	<p>두 번째 활동에서는 본격적으로 선정교재의 내용에 대해 깊게 파고드는 활동을 하였다. 책에서 나온 페르미 추정을 이용해 이승현은 한라산을 삽으로 모두 퍼내려면 80조 2천억번을 삽질해야 한다는 것을, 하현석은 소설책 한 권에 있는 글자가 평균적으로 16만 2781개의 글자가 있다는 것을, 이지행은 대전시에서 하루에 팔리는 치킨 양이 대략 14만개임을, 하은빈은 땅콩으로 잠실 야구장을 채우려면 390억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해봤다.</p> <p>또한 선정 교재에서는 지수적 증가 그래프에 대해 나왔지만 그 반대로 지수적 붕괴의 그래프에 대한 예시도 찾아보았다. 이승현은 파동의 진폭 감소 그래프, 이지행은 방사능의 반감기, 하현석은 배터리의 충전 시 지수적 증가와 사용 시의 지수적 감소에 대해 조사하였고, 하은빈은 끓는 물의 온도가 처음에는 큰 차이로 온도가 감소하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천천히 떨어진다는 지수적 감소를 조사하였다.</p> <p>위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하였고, 다음 활동에서는 책의 2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 활동은 11/14일이다. 이상.</p>	

	일시	11월 14일 16:00 학술정보관 4층 그룹스터디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2293006 이승현	O			
	2271461 하현석	O			
	2271465 이지행	O			
	2331237 하은빈	O			
진도	도서명: 수학의 힘	진도페이지: 110p.~ 215p.			
3주차	 <p>[하현석, 이지행, 민경진 교수님, 이승현, 하은빈]</p>				
토론 내용	<p>이번 3회차 활동에서는 수학의 힘 2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다. 큰 수의 법칙, 베이즈 정리, 조건부 확률 등 통계에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기술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토론을 하였다.</p> <p>첫 번째로 큰 수의 법칙이란, 이전의 결과가 이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실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특정한 결과가 나오는 횟수의 비율이 그 결과의 진짜 확률에 점점 가까워진다는 법칙인데, 이러한 법칙을 토대로 만약에 로또를 구매한다면 정말로 저번 주 로또 번호를 전혀 신경쓰지 않고 로또 번호를 고를 수 있겠느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해서 전 인원 모두 저번주에 나왔던 로또 번호는 최대한 피해서 찍을 것 같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는 큰 수의 법칙을 통해 저번 주의 로또 번호가 이번 주의 로또 번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사람은 심리적 기재가 발휘되어 다른 번호를 찍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p> <p>두 번째 토론에서는 베이즈 정리가 실생활에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승현은 베이즈 정리를 통해 상황별 배우자가 바람을 피울 확률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를, 하현석은 추리소설의 범인을 추리할 수 있는 상황별 확률, 이지행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방식, 하은빈은 스팸 메일에서 자주 쓰이는 특정 단어를 감지해 스팸 메일을 걸러내는 방식에 대해 소개하였다.</p> <p>위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하였고, 다음 활동에서는 책의 4부 십계명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음에 있는 마지막 활동은 11/21에 있을 예정이다. 이상.</p>				

	일시	11월 21일 16:00 상상베이스 103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2293006 이승현	O			
	2271461 하현석	O			
	2271465 이지행	O			
	2331237 하은빈	O			
진도	도서명: 수학의 힘	진도페이지: 308p~324p			
4주차					
토론 내용	<p>[하은빈, 민경진 교수님, 이승현, 이지행, 하현석]</p> <p>벌써 마지막 4회차 활동이다. 마지막 활동에서는 수학의 힘 4부 [수학의 10계명]에 대해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졌다. 10가지 교훈 중 가장 와닿았던 교훈, 이 책을 통해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하였다.</p> <p>우선 가장 와닿았던 교훈으로 이승현은 ‘모든 것이 바라는대로 되지 않는다’를 꼽았고, 하현석은 ‘균형잡힌 시선을 가져라’, 하은빈은 ‘가정을 자세히 살펴라’, 이지행은 ‘실수를 인정해라’를 꼽았다.</p> <p>또한 작가가 전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는 이승현은 ‘수학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라’, 하현석은 ‘수학은 우리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도구이나 가끔 함정이 있는 도구’, 하은빈은 ‘수학은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지행은 ‘사회가 말하는 통계를 맹신하지 마라’라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했다.</p> <p>위와 같은 내용으로 토의를 가졌고 마지막 활동이 종료되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다들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며 좋은 추억과 실용적인 지식,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른 책으로도 독서클럽 활동을 하고 싶다. 이상.</p>				

활동 후기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1	2293006 이승현	<p>이번 [수학의 힘]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수학을 그냥 문제 푸는 과목이 아니라, 사고 방식 자체를 넓혀주는 도구로 다시 보게 됐다.</p> <p>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혼자 읽을 때보다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생각도 많이 확장됐다.</p> <p>특히 일상 속에서 수학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야기했던 게 인상적이었다.</p> <p>전체적으로 부담 없이 즐기면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p>
	2	2271461 하현석	<p>이번 활동을 하면서 나의 잘못된 편견과 생각을 고칠 수 있었다. 책을 읽는 것도 좋았지만 그런 책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책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고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음에는 수학과 관련된 책이 아닌 좀 더 넓게 철학이나 문학과 같은 다른 분야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3	2271465 이지행	<p>매주 금요일 교내에서 멤버들과 교수님까지 다같이 만나 활동을 진행했다. 책을 읽기만 할 뿐만 아니라 책 내용에 대해 여러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게 그때그때 읽은 부분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고, 그로 인해 그냥 책만 읽을 때보다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 덕분에 평소 어렵게만 생각했던 수학에 대해 훨씬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p>
	4	2331237 하은빈	<p>‘수학의 힘’을 읽은 후 수학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엔 수학이라고 하면 지겹고 어려운 계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고만 생각되었는데, 책을 읽어보니 수학은 내 생각보다 재미있는 과목이었고, 또 현실의 문제에 도움 말을 달아주는 매우 실용적인 과목임을 알게 되었다. 가장 깊이 와닿은 내용은 10계명의 내용 중 가정을 살펴라라는 대목이었다. 혹여 아직까지도 수학을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과목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추천해 주고 싶다.</p>
	5	성명 (학번)	

2025학년도 2학기 독서클럽(28기) 테마도서 서평

작성자		도서명	
학번		저자명	

서평 내용 (개별항목 및 항목별 분량은 자유롭게 조정가능, **1,000자 이상** 작성)

■ 도서 선정 이유 (이 책을 선택한 계기나 흥미를 끈 이유)

*100자 내외

■ 주요 내용 요약

*300~400자

■ 느낀점 및 인상 깊은 부분

*400~500자

■ 도서 추천 여부 및 이유

*100자 내외

[서평 첨삭 방법] **무조건 해당 양식으로 작성하여 '사고와 표현 과정'에 제출*

서평 작성 ▶ 스마트자기관리시스템 '사고와 표현 과정' 상담 프로그램 신청 ▶ 첨삭내용 토대로 내용 수정

[서평 제출 방법] **자유 형식 파일 첨부 가능*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 상상독서 홈페이지 ▶ 글쓰기(파란색 아이콘) ▶ 도서 검색 ▶ **1. 해당 양식으로 작성한 첨삭 전 서평 / 2.'사고와 표현 과정'에서 피드백 받은 첨삭 내용 / 3.첨삭 내용 반영한 최종 서평 총 3가지** 입력 후 발행